



외국인 순매도는 미국이 주도

1. 2021년 외국인 순매도는 미국이 주도

- 올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순매도
- 올해 외국인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 주식 4조 8090억원 순매도
- 올해 영국과 싱가포르, 스웨덴은 우리나라 주식 순매수

2. 신흥국 주식펀드 In, 미국계자금 Out

- 미국계 자금은 펀드 비중이 높아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입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음. 하지만 올해 1~2월에는 반대되는 자금 흐름 보임
- 달러 강세와 우리나라 주식 가치 상승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3. 유동성 확보와 차익실현

- 신흥국주식펀드의 평균 유동성 비중을 보면, 1월 2.6%에서 2월 3.6%로 크게 높아짐.
- 2월에 주식자산을 처분하고 유동성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수행된 것으로 판단
-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미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음

1. 2021년 외국인 순매도는 미국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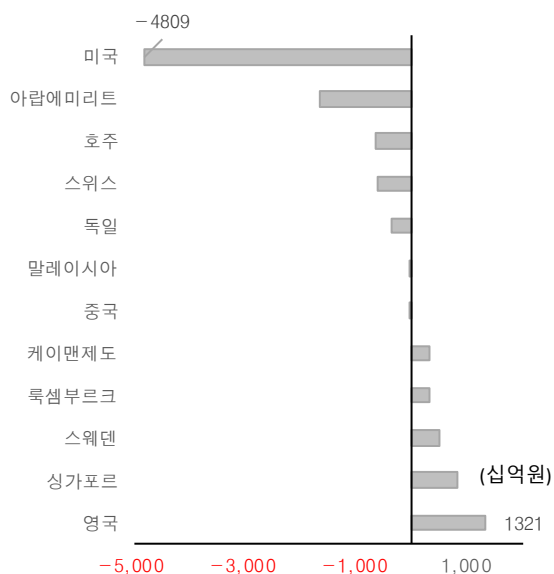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신흥국 주식시장에서 글로벌 자금 회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게다가 올해 1~2월에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를 기록하였다.

외국인 동향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올해는 미국에서 4조 8090억원의 국내주식을 매도하였다. 그 뒤를 아랍에미리트와 호주가 따르고 있다.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 스웨덴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였다.

외국인 중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는 41.3%를 보유한 미국(329조원)이다. 그 뒤를 역외펀드와 헤지펀드 등이 많은 영국(7.8%, 62조원)과 룩셈부르크(7.0%, 55조원) 등이 따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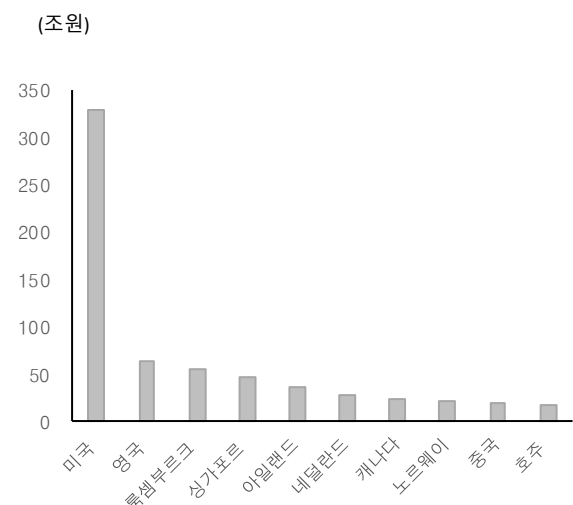
2월 들어 케이맨제도, 영국, 룩셈부르크 등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수하였고, 국부펀드 비중이 높은 아랍에미리트(1조 6430억원)와 싱가포르(7930억원) 등은 우리나라 주식을 순매도하였다. 2020년말 8조 9100억원을 보유했던 아랍에미리트는 2월에 1조 643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비중을 크게 줄였다.

[차트1] 2021년 외국인 순매도는 미국이 주도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외국인 국내주식 보유는 미국, 영국 순서



자료: 금융감독원,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신흥국 주식펀드 In, 미국계자금 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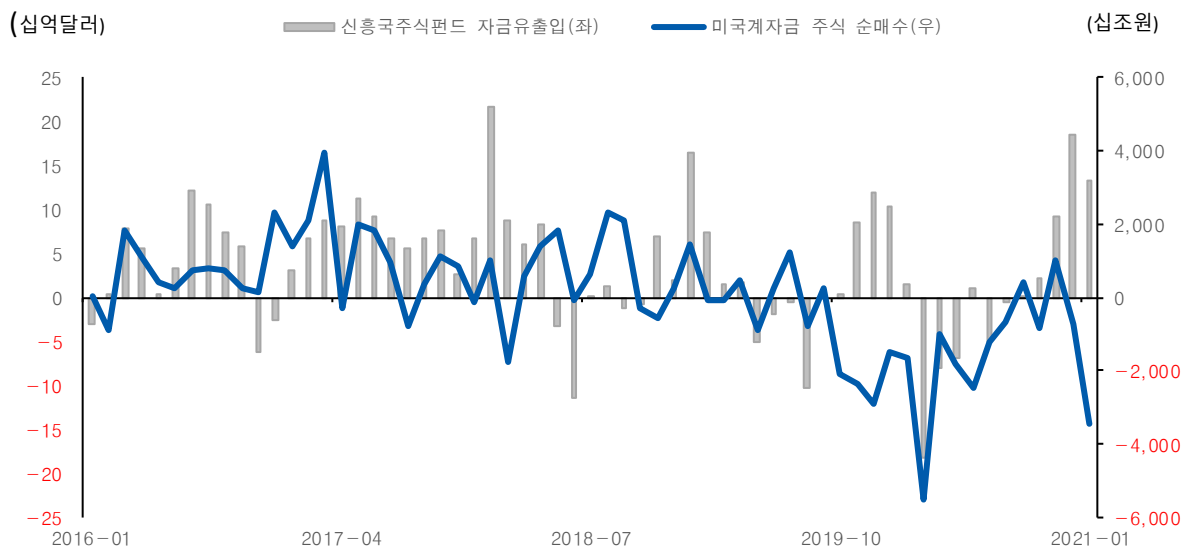
미국계 자금은 펀드 비중이 높아서 일반적으로 글로벌 펀드 자금 유출입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작년부터는 이런 패턴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미국계 자금은 1월 3조 4340억원, 2월 1조 3750억원의 국내주식을 순매도 하였다. 2020년 순매도규모가 16조 35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2월의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 금액은 큰 수준이다. 2016년부터 미국계 자금의 순매도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선 경우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3월뿐이다.

게다가 올해초에는 신흥국주식펀드로는 자금이 들어온 시기였는데도, 아주 이례적으로 미국계 자금은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다. 글로벌펀드 시장의 신흥국 관련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이어졌지만, 달러 강세와 우리나라 주식 가치 상승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흐름과 미국계 자금의 방향이 다를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계 자금은 신흥국주식펀드의 자금 흐름을 따르게 될 것이다.

[차트3] 일반적으로 신흥국주식펀드와 미국계 자금은 비슷하게 움직이나, 올해는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들어와도 미국계 자금은 순매도하는 패턴이 나타남



자료: 금융감독원,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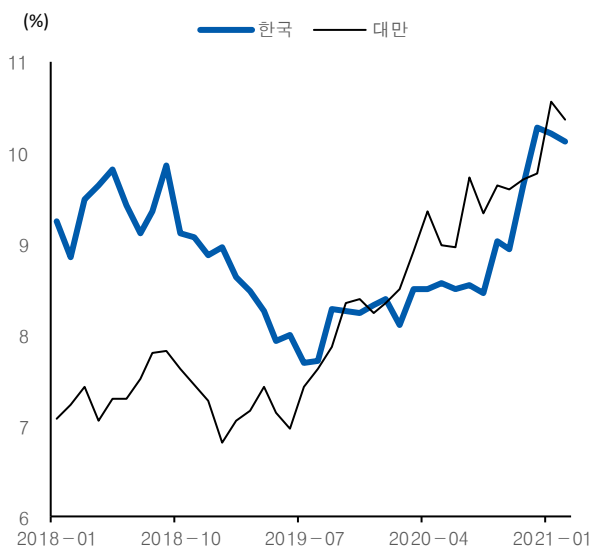
3. 유동성 확보와 차익실현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평균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27.5%)이다. 그 뒤를 대만(10.4%)와 한국(10.1%)이 따르고 있다. 2월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세 국가의 비중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주요 국가의 증시가 약세를 보인 영향도 있지만, 펀드에서 그동안 이익 실현이 많았던 종목을 일부 이익실현 한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주식펀드의 평균 유동성 비중을 보면, 1월 2.6%에서 2월 3.6%로 크게 높아졌다. 2월 포트폴리오 데이터가 집계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2월에 많은 펀드에서 주식 자산을 일부 처분하고 유동성으로 보유하는 전략이 수행된 것으로 보인다. 달러 강세가 시작되는 국면에서 평가이익이 큰 신흥국 주식 자산을 일부 차익실현한 것이다.

국부펀드 비중이 높은 아랍에미리트는 차익실현을 위하여 우리나라 주식을 1.7조원 정도 매도하여 보유 규모가 8.1조원 이하로 줄어들었다(2월말 기준), 미국계 자금은 신흥국 주식펀드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외국인 순매도의 주역이었던 미국과 아랍에미리트의 추가 순매도 가능성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차트4] 신흥국주식펀드에서 한국과 대만 비중은 약간 줄어
들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5] 신흥국 주식펀드의 유동성 비중은 최저수준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